지방정부 운영의 경영화

오연천 ·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, 재정학

머리말

지방화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의 토대가 되고 주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로 집약할 수 있다. 특히, '자기 확신'이 가장 뚜렷한 단위가 지방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바로 지방화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,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다루는 시각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. 그렇다면 지방화와 지방자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? 지방화와 지방자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칭해지는 지방자치는 중앙 · 지방 관계의 측면에서 분권화의 틀을 만듦으로써 지방화의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.

지방화는 이와 같은 분권화를 기초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'自生化'의 측면을 포함하여야 할 뿐 아니라, 다원화 · 고유화되는 문화적 · 사회적인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. 더 나아가서 주민 후생의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화 문제와 의사결정의 자율화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러한 개념들이 의사 결정 단위로서 지방 속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방화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지난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는 지방화를 향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

이제 지방화 · 세계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단위 지역의 정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자적 · 자율적 운영 단위로서 '지방자치단체'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지방화 · 세계화는 지방에 있어서 '경쟁'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. 기업과 민간 자본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뿐 아니라 그 범위가 세계적 ·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. 지역 경제의 경쟁 대상이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국내에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, 세계적 수준에서의 비교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